

## May You Be Strengthened by this Anointed message of the Past!



Art Rorheim [AWANA 설립자]

### **FRUIT THAT REMAINS**

Search the faces of the kids you work with in Awana each week. They come in such variety: fat, plump, skinny, clean, dirty! Some clubbers are neatly dressed, and others couldn't care less how they look. Many arrive with their batteries fully charged each club night. If they don't receive instant personal attention, the club night becomes a disaster display.

Sooner or later, leaders ask themselves the four word question, "Is it worth it?" Perhaps you have said to yourself, "I really enjoy working in Awana. There is certainly a real need to reach these kids in our church neighborhood. But sometimes I get tired and frustrated and even feel like quitting. I wonder if the church really appreciates all the time I give."

I must confess there have been times when I have caught myself evaluating my own personal club leadership in a mechanical way. Club night was just another job that took a time slot in my life schedule. Satan often blurred the picture. He kept me from seeing the spiritual rough diamonds as I looked into the faces of clubbers. Yes, it has been pretty hard to stretch my imagination to really see diamonds among them.

John 15:16 challenges us to the fact that we have been ordained. We should "go and bring forth fruit, and this fruit should remain!" Ecclesiastes 11:1 says "Cast thy bread upon the waters, for thou shalt find it after many days." That's a definite promise from God. If we faithfully proclaim His Word, we will see fruit in due time. Just today, as I write this, I had a surprise visit from Bill and Grace Merrifield. Both are former Awana clubbers. I remember Bill as a boy. He was invited to club by a friend. After school, Bill worked at the Awana office when it was just one small room under a stairway. He assisted in the paper drives that helped purchase the first Awana printing press. He also became a leader in one of the first Awana Clubs.

One day Bill told me that God was calling him to be a missionary. God had equipped Bill with a sharp mind. This young man became a Bible translator. Years later he presented me with the delightful gift of a new Testament translation for the Chinanteca tribe in Mexico. Today Bill travels around the world assisting missionaries in their translation ministries. Yet when Bill first came to club, it wasn't easy to imagine how God would ever use him.

Then there was Otto. Do you have a clubber who seems spiritually hopeless? With all the effort you give toward reaching him or her, you don't make much progress. This was Otto. He attended club and enjoyed the fun.

Spiritually he was almost a zero. As a teenager, he decided to take his fling with the world. Although we completely lost track of him, we often prayed that God would cause him to listen and think about all the precious messages he had heard from the Word.

Years later I was sitting on the platform of a church where I had been invited to speak. I was amazed to see Otto walking down the aisle to be seated. With him were his wife and child. I nudged the Pastor and asked him if he knew who this couple was. I will never forget his remark, "Yes, he is one of the bright spots in our church."

My reply, "Please tell me that again!" I couldn't believe that Otto could ever be the bright spot in any church. Later I learned how Otto had really come to grips with himself and had given his life to serve the Lord. Otto was instrumental in starting Awana in that church. Today he is the teacher of an adult Bible class. As Galatians 6:9 say, "... in due season, we shall reap, if we faint not." Otto was a case of delayed fruit.

And then there was Arne, a cute blond, lovable boy who seemed to smile at everything. His older brother brought him to Awana. Arne was saved and began to mature in the things of the Lord. He later became an Awana leader and then Youth Pastor at the North Side Gospel Center where Awana was born.

God called Arne to be an Awana Missionary to the states of Arizona and New Mexico. God had given Arne unusual abilities to win the hearts of people and motivate them to service. The Awana program grew rapidly in Arizona. In 1982 God wonderfully led Arne to Awana headquarters Missions Department. We thank God for the training Arne had first as a clubber and then as a missionary. This experience enabled him to serve as the effective Awana Missionary Director that he is today.

Producing "fruit that remains" is not primarily the result of a program. Rather it is the result of the message of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This message changes lives. It assists young people in finding the ministry God ordained for the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Be a fruit bearer for God. Discover God's diamonds. Allow God to direct and teach you to polish rough diamonds. Pray that they will someday shine brightly and glorify our wonderful Lord. There's a price to pay to make it all happen. Allow God to thrill you anew with the opportunities to produce fruit that remains.

(Art Rorheim, Awana Founder, from July/August 1984 Signal Magazine)

## 영원히 썩지 않을 열매

\* 알트 로하임은 국제 어와나의 설립자입니다.

매주 어와나 클럽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양한 모습의 아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뚱뚱한 아이, 포동포동한 아이, 캄마른 아이, 깨끗한 아이, 더러운 아이! 어떤 아이들은 매우 잘 차려 입고 어와나에 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아이들은 에너지가 가득 안고 어와나에 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활기에 넘치는지)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둔다면, 그날 어와나 모임은 엉망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제 어와나 교사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어쩌면 여러분도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와나에서 봉사하는 것은 즐거워. 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훈련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야. 하지만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서 어느 땐 그냥 그만두고 싶어진다 말이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저도 저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음을 고백합니다. 어와나 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제가 생활을 위해 해야 할 일과에 끼어드는 불청객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사탄은 자주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그림을 망쳐놓습니다. 제가 어와나 클럽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사탄은 (저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그들이 영적인 다이아몬드 원석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 아이들 속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때가 되어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바로 오늘, 빌과 그레이스 부부(Bill & Grace Merrifield)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빌과 그레이스는 모두 어와나 출신입니다. 저는 빌이 소년이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빌은 친구의 소개로 어와나에 처음 나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빌은 어와나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왔습니다. 당시 어와나 사무실은 교회 층계 밑에 있는 구석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소년 빌은 폐품 신문지를 모아, 어와나 첫 번째 인쇄기를 구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첫 번째 어와나 클럽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이 나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에게 예민한 마음을 주셔서 사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 빌은 성경 번역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에, 빌은 멕시코의 치난텍(Chinanteca) 부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들고 와서 나에게 선물로 전해 주었습니다. 현재 빌은 전세계를 여행하며 성경 번역을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이 처음 어와나 클럽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나는 또 한 사람으로 오토(Otto)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와나 클럽에 영적으로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가 있나요?

교사인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 말이죠. 오토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오토는 어와나 클럽에 나와, 재미있게 계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의 제로(0)에 가까웠습니다. 십대 청소년이 되었을 때, 오토는 자신을 세상에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오토와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지만,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은 귀한 메시지를 잊지 않고 생각하기를 기도하곤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설교 초청을 받은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저의 차레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토가 교회 복도를 걸어와 자리에 앉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토 옆에는 그의 아내와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님의 영구리를 살짝 찌르면서 “혹시 저 부부를 잘 아시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의 대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입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아, 목사님,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오토가 어떤 교회의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리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후에 저는 오토가 어떻게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들었습니다. 오토는 그 교회에 어와나를 시작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그는 성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섬기는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오토는 조금 늦었지만 분명히 열매를 맺은 경우입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경우는 아렌(Arne)입니다. 아렌은 모든 일에 미소를 지어보일 것 같은 사랑스러운 금발의 소년이었습니다. 아렌은 형을 따라 어와나에 나왔습니다. 아렌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나갔습니다. 후에 아렌은 어와나가 처음 시작된 노스 사이드 가스펠 센터(North Side Gospel Center)의 어와나 교사가 되었고, 후에는 청년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렌을 미국의 아리조나 주와 뉴 멕시코 주의 어와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렌에게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렌을 통해) 아리조나 주에서 어와나 프로그램이 급격한 성장을 거두었고, 1982년에 하나님께서는 아렌을 어와나 본부의 선교부로 옮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렌은 어와나 클럽원으로 시작하여 어와나 선교사가 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어와나 본부의 선교부에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열매를 맺는 것”은 본래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낳는 결과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명하신 그들의 사역을 찾아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친 다이아몬드 원석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들이 훗날 밝게 빛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우리 놀라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치려야 할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